

《호 소 문》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는 가뜰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조합원 간의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고 더 나아가 조합의 존립마저 위기로 몰아가며 향후 조합원님들의 권익보호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큰 숙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합은 지난 5월 27일 제1차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플랫폼 사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님들이 플랫폼 사업에 대하여 잘못 알거나 잘못 이해하여 오해와 편견으로 혼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플랫폼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조합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드리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첫째, 조합원이 특정 플랫폼사업에 가입한 것을 사유로 징계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특정 플랫폼사업(카카오T블루, 우티, 마카롱, 인천콜, 세븐콜등)에 가입하여 택시 사업을 한다는 사유로 조합정관이나 대의원 결의, 이사회결의로 징계(제명) 처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광주법인택시조합에서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법인회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징계 처분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고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타다에 가입한 조합원 제명이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이 난 예가 있습니다.

둘째, 조합은 인천콜이나 카카오의 갑질에 대항하기 위해 조합콜을 선정하여 운영 했습니다.

지난 3년전 조합은 인천콜 횡포를 막아내고, 카카오의 독점으로 인한 횡포를 예견하여 세븐콜을 조합콜로 선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에 지역콜이 카카오로 인하여 고사 상태에 있듯이 조합콜(세븐콜)도 마찬가지로 조합의 투자에 대한 한계성과 앱 운영시스템과 홍보마케팅이 대자본을 투자한 카카오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조합콜에 대한 조합원님들의 주인의식 부족과 일부 조합원들이 허위사실 (계약서에 조합이사장이 세븐콜 공동대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김승일 개인의 노후 대책 콜이라고 주장)을 유포하며 조합콜 활성화를 반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콜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럭키세븐콜을 조합콜로 선정하여 운영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카카오의 갑질과 횡포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셋째, 조합은 전국연합회에서 전국콜로 선정된 온다콜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국연합회에서는 플랫폼 사업이 합법화되면서 카카오의 독점을 막기 위하여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과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카카오가 독점한 플랫폼 시장에 투자를 거부하였으며, 그중에 손님에게 택시요금을 1,000원을 할인하는 마케팅을 제안한 마카롱과 협약을 체결하고 카카오의 독점을 막아보려 했으나, 역시 카카오 벽을 넘지 못하였고 카카오의 횡포는 카

카오T블루와 프로멤버십으로 더 심각해지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연합회는 집행부 부재 상태였던 서울개인택시조합 집행부의 정상화로 동력을 얻어 수도권을 주축으로 하는 전국 콜을 발족하기로 하고 지난 10일 전국연합회 이사회에서 온다콜을 전국콜로 선정하고 표준계약서를 ①가맹사업은 하지 않을 것 ②전국의 지역콜을 연계하여 운영할 것 ③플랫폼 사업을 변경할 때에는 조합과 합의 할 것 등을 주요 골자로 체결하기로 하였고

당 조합은 제5차 이사회와 제1차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전국연합회에서 선정된 플랫폼 사업자를 인천조합도 협조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플랫폼 사업자(온다)와 구체적 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콜인 럭키세븐콜을 연계하는 전국콜(조합콜) 온다콜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항간에는 투자능력이 있는 대기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대부분의 투자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카카오와 같은 방식으로 조합과는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입장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카카오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하여는 전국콜(조합콜)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인천법인택시조합이 분열되면서 카카오T블루가 안정적으로 사업기반을 구축하였고 인천에서 카카오T블루가 사업기반이 구축된 상황에서 개인택시가 뭉쳐서 싸운다고 해도 카카오T블루를 근절시킬 수 없는 현실점에 대안 없이 개인택시조합에서 카카오T블루 거부운동을 하는 것은 선량한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목줄만 더 조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 조합에서는 플랫폼 사업이 제도화되기 전에 인천콜, 세븐콜, 가나콜, 나비콜 등을 선택하여 사업했듯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국연합회와 인천개인택시조합은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로 횡포하는 것과 불공정 배차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며, 개인택시에게 유리한 플랫폼사업 타입3(중개사업)로 진행되는 카카오 프로멤버십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최소한 카카오에게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조합이 주도하는 콜이 필요함을 인지하시고 전국콜(조합콜)이 카카오를 견제할 수 있도록 콜시장 점유율이 최하 10%가 될 때까지 일 할 때는 카카오콜을 받고 일을 하시더라도 택시를 탈 때에는 반드시 전국콜(조합콜)을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더 나아가 조합원님의 가족, 조합원님의 친구, 조합원 가족의 친구가 택시를 탈 때에는 조합콜을 이용하여 독점으로 갑질하는 카카오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조합은 카카오 독점을 견제하는 전국콜(조합콜) 활성화 추진과 더불어 콜 다양화와 특성화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독점하고 있는 콜시장에서 단일콜로 카카오와 경쟁하는 것은 계란으

로 바워치기라 할 것입니다.

플랫폼 사업의 취지는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앞서서 호소드렸듯이 카카오를 견제할 수 있는 전국콜(조합콜) 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특성화콜 (장애인바우처콜, 영종도 아이모아택시, 이음콜 택시 등)을 더욱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장차 장애인콜 택시를 택시로 하는 방안이나 관광콜택시, 임대업무택시, 학원통학택시 등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카카오의 편리함에 중독되어 우리콜을 소외시키며 카카오를 이용한 결과 카카오의 갑질과 횡포를 당하는 현실에서 경험했듯이 “공짜는 없다”는 사실과 우리콜(조합콜)을 우리가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홍보하지 못하여 활성화 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업권을 보장받을 수 없고 자본가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자본가의 머슴으로 살겠습니까?

개인사업자들로써 자존심을 지키며 일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떨어지는 감만 받아먹으며 사업하다가 카카로나 대자본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부터라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개인택시가 살길은 자본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만든 우리콜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인의식으로 우리들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대자본과 싸워서 이긴다는 큰 목표보다는 대자본의 갑질과 횡포를 최소한 견제할 수 있도록 조합콜이 콜시장 점유율 10% 확보를 위해 다 함께 전국콜(온다콜) 활성화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택시플랫폼사업의 제도화는 과거의 택시업계가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자 정부는 택시를 없애고 자가용으로 택시를 할 수 있도록 카풀을 추진하였고, 정부가 추진한 카풀(자가용택시)과 타다(렌트카택시)를 4개 단체가 투쟁으로 막아내면서 대안으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 택시를 살려내고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한 택시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유연비어나 개인의 식견으로 속단하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은 조합에 문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셔서 조합이 발전적으로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6. 04.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

